

## 科學技術협력확대 合議

年内 亞·太과학장관회의 開催키로

### 李과기처장관, 호주등 4개국 순방



〈李台燮장관〉

政府는 아시아·태평양과학장관회의(TCAPC)를 설치하여 亞·太지역의 과학기술협력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亞·太지역의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李台燮과학기술처장관은 3월 7일부터 15일 동안 호주를 비롯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을 순방, 호주의 스테펜총독,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트 대통령과 순방국의 과학장관들을 만나 과학기술협력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4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다.

李장관은 특히 이번 순방에서 亞·太과학장관회의를 설치해 지역내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亞·太지역의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갈 것을 제의해 방문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李장관은 지난 7일부터 7일간 호주를 방문, 스테펜총독을 예방하고 존스과학성장관 등을 만나 亞·太과학장관회의의 설치와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유전공학, 통신, 신소재,

해양 및 우주분야에서 20개 과제를 공동 연구할 것에 합의했다.

李장관은 이어 인도네시아를 방문, 수하르트대통령을 예방하고 하비비에 과학기술성장관을 만나 亞·太과학장관회의의 개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자원이용과 광물탐사분야의 양국 공동연구에 합의했다.

李장관 또 싱가포르를 방문, 李炫龍상공성장관과 회담, 빠른 시일내에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증진시켜 나갈 것에 합의했다.

李장관은 귀로에 말레이시아를 방문, 과학기술환경성장관과 제1차 한·말연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전자, 통신, 화학분야 10개 과제의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말레이시아진출에 적극 지원할 것도 약속받았다.

### 科技 정책연구과제 선정

#### 科技處, 금년도 1차분

科學技術處는 금년도 과학기술 정책연구사업중 1차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에서 3억 6천만원, 한국과학재단에서 1억원등 모두 4억

6천만원의 재원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연구과제와 연구수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투자의 흐름 분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투자 GNP 對比 5% 확대방안연구 △생산 자동화기술의 진전확산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以上 정책연구평가센터, △환태평양 과학기술협력증진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추진방안연구=국제관계 연구소, △해양개발추진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해양연구소, △국산신기술제품 시장수요조성 및 연구개발자를 위한 유인제도 연구=산업경제연구소, △새로운 차원의 과학화운동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저술인협회·과학기술자클럽

### 새회장에 全相根씨 선임

#### 科友會, 機構도 확대개편

科學技術處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科友會는 3월 12일 금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全相根씨(한국과학기술번역협회장), 부회장에 李正煥(과학재단 감사)·朴甫植(동력자원연구소장)·金奏依(신화통상회장)·金熙喆(벽산그룹 부회장)·南宮浩(조선공사 사장)씨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회장의 자문에 응할 고문단과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고문단은 전직 과기처장관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과기처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를 단체회원으로 가입토록 했다.

또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운영위원을 두기로 했다.

# 金부총리 禮訪 신임人事

## 朴泰源회장 · 鄭助英사무총장

### 廉普鉉 서울特別市長도 찾아

사는 품질관리의 새기법을 연구, 이의 성과를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산업공학회등 관련기관도 찾아볼 계획이다.



〈金滿堤부총리〉

韓國과학기술훈단체총연합회 朴泰源회장은 4월 2일 신임인사차 金滿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文熹甲차관을 예방하고 학회 학술활동지원예산의 증대와 科總육성에 관해 건의했다.



학자 張相勳박사(굳이어社선임연구원겸 자문역)의 예방을 받고 재외한국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15년만에 모국을 방문한 張박

# 有望中小企業에 기술지도 및 자문

## 元老諮問團, 올 事業계획 및 예산確定

韓國과학기술훈단체총연합회는 3월 30일 科總회의실에서 元老科學技術諮問團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198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新規단원으로 가입을 신청한 원로과학기술자 57명(이학 15명, 공학 21명, 농수산 9명, 보건 12명)의 가입을 승인했다.

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의하여 산하회원사들의 자문단 활용을 적극 권장토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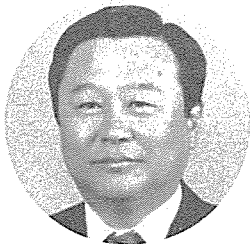
이밖에도 대학부설 연구소를 비롯 민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자문단은 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발달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분야별 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진외국과의 비교분석은 물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평가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작정이다.

또한 同자문단은 3월 31일 부문별部長 및 分科委員長 連席會議을 열고 부문별·분과별 활동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5명의 部長가운데 일부를 교체, 이학부장에 김옥준씨, 공학부장에 조동진씨, 보건부장에 유준씨를 새로 선임하고 옥중화농수산부장과 신용균중합부장을 유임시켰다.

朴泰源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술지도 및 자문 △특강 및 교육개발자문 △연구활동지도 및 자문 △과학기술문헌 번역 및 감수 △과학기술정책자문등 기본사업에 따른 세부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연구용역사업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發達史」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기로 했다.

동자문단은 특히 올해에 科技術處가 선정할 346개 유망중소기업 가운데 기반기술이 취약한 1백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을 실시키로 했으며 중소



〈廉普鉉市長〉

朴泰源회장은 鄭助英 사무총장과 함께 이날 金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예방한데 이어 廉普鉉 서울市長도 예방, 신임인사와 함께 科總이 추진중인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대지구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유치문제등 意見교환

#### 鄭총장, 在美 張박사와

韓國과학기술훈단체총연합회 鄭助英사무총장은 4월 1일 在美과

# “任員들의 아낌없는 協助 당부”

## 朴泰源회장, 취임후 첫 간담회 열고



◇새임원진 구성후 열린 첫 간담회에서 朴泰源회장(원내)이 임원들에게 人事를 하고 있다.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朴泰源회장은 3월 16일 취임후 처음으로 제22회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科總현안문제 등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환담을 나누었다.

金東一상임고문과 閔寬植 명예회장을 비롯 고문과 부회장, 이사 등 7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新任 朴회장은 『재임기간동안 科總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여 당면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全國民 확산방안 모색

#### 科學化運動토론회서

「새로운 차원의 과학화운동을 위한 대토론회」가 3월 31일 프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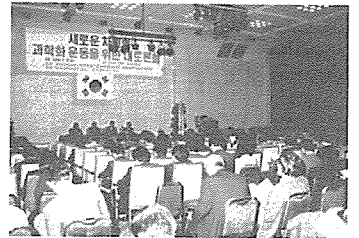
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韓國科學著術人協會(회장 金貞欽)와 韓國科學記者클럽(회장 李光榮) 공동주최로 열렸다.

전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차원적인 과학기술 풍토조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과학기술 진흥기운이 전국민에게 확산되기 위한 방안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金泰吉박사(학술원 회원)의 「2천년대 대중과학운동의 철학적 성찰」 전 부총리인 李漢彬박사(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교수)의 「과학 풍토 조성의 시대적사명」 전 과학처장관인 崔亨燮박사(학술원 회원)의 「기술자립의 길-모방에서 창조로의 전환-」 등 3개 주제 발표에 이어 새로운 차원의 과학화운동을 위한 패널토의가 있었다. (주제발표 내용은 本文참조)

이날 개회식에서 李台燮과학기

술처장관은 『이 시대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科學을 이해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科學文化를 체질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하고 『고도 과학기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과학기술자들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에 동참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과학대중화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대한 논평에서 朴星來 외국어대 교수는 『大衆과 과학기술과의 유리현상은 심각한 문제이며 인류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科學文明을 보다 빨리 수용할 수 있다면 21세기에는 선진대열에 걸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崔東植 고려대교수는 『이제 科學이라는 用語자체가 自然科學만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科學을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다 관념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科學化運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 「갈살아보세」라는 새마을운동 슬로건 같이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과학화운동 슬로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새마을운동본부같은 곳을 새과학화운동본부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제10차 國內外綜合學術大會 개최

科總주최로, 7월 6일~18일 仁荷大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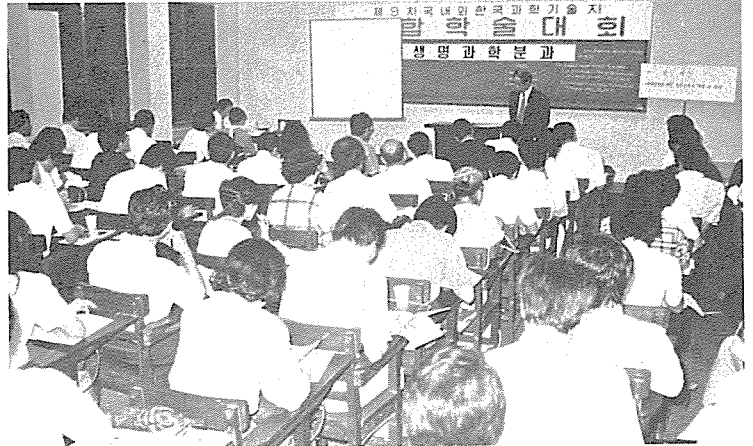
## 8개分科서 370여편의 最新연구논문發表

미주지역을 비롯 구라과, 일본 등 전세계에 퍼져있는 동포과학자와 국내과학기술자등 4천여명이 대거 참가하는 제10차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가 오는 7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인천소재 仁荷대학교에서 개최된다.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3월 16일 科總회의실에서 1987년도 제10차 종합학술대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겸 대회장 朴泰源)를 열고 학술대회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학술위원장에 南宗祐인하대학교 부총장, 재정위원장에 愼武賊(주) 서한종합건축사 사무소 회장, 감사에 李泰鎡과총감사·李正煥과학재단상임감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7월 6일 협의회를 시작으로 7일 개회식 및 축하연에 이어 바로 학술발표에 들어가 10일까지 4일간 실시하며 13~15일 산업시찰, 16일 연구·교육기관견학, 18일 단담회및 세미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실시될 학술발표는 △數理분과(수학, 통계학) △物理科學분과(물리학, 화학) △生命科學분과(생물학, 의학·약학, 농수산학) △地球科學분과(해양학, 지질



◇國內최대의 학술제전인 제10차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가 오는 7월 6일부터 18일까지 仁荷大에서 열린다.(사진은 제9차대회 학술발표광경)

학, 천문학) △情報産業분과(전기·전자·컴퓨터·통신·시스템공학) △材料工學분과(재료공학) △産業技術(I)분과(기계공학, 화학공학) △産業技術(II)분과(건축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등 8개분과에서 모두 370여편의 최신연구논문이 발표되며 아울러 전문분야별 세미나와 워크숍도 실시될 예정이다.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첨단과학기술의 전달과 교류로 산업기술의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美州지역에서 600여명, 歐州지역에서 150여명, 亞州지역에서 100여명등 재외과

과학기술자 850여명(일반참가자 및 동반가족 포함)과 국내 과학기술자등 총 4천여명이 참가하는 매머드 학술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4년에 이어 3년만에 열리는 종합학술대회인 이번 대회는 미주·구라과·일본등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우리의 고급두뇌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학술및 기술정보를 직접 교환함으로써 연구활동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민족의 과학능력과 기술저력을 전 국민에게 재인식시키고 과학꿈토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科學技術院 大德건물 起工

## 1,560억원 投入...89년에 完工



지난 84년 4월 한국과학기술원의 大德이전계획이 확정된지 3년만인 지난 3월 25일 大德이전에 따른 건물기공식이 李台燮과학기술처장관을 비롯 관계인사와 현지주민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대전시 大德 연구단지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공식에서 李台燮장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도시인 대덕연구단지는 한국과학기술원이 합류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의 과학·교육·행정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대덕단지에 과학두뇌와 기술인력을 집결·정착시켜 기술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세계수준의 과학기술기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오는 90년대까지 대덕연구단지를 50여개의 교육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인구 5만의 시범적 기술도시로 건설하여 연구·교육·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시범적 과학기술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大德연구단지 서남쪽 35만평의

부지위에 교육 및 연구시설등 모

두 8만9천여평의 규모로 세워지는 파기원건물은 총 공사비 1천5백60억원이 투입되어 89년에 완공된다.

건물규모는 교육 및 연구시설 5만4천여평, 지원시설 1만6천5백평, 기숙사 1만3백평, 아파트 3천평, 그리고 시스템공학센터 5천1백평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大德연구단지에는 한국과학기술대학등 3개대학, 한국표준연구소등 8개 정부출연연구소, <주> 럭키등 3개 민간기술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 3개研究室·技術評價위원 두기로

#### 科學技術정책연구 評價센터내에

韓國科學技術院은 금년 1월 5일부로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에 정책연구실과 연구평가실, 연구기획실등 3개의 연구실과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등을 두기로 확정했다.

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정책연구실은 과학기술개발시스템의 분석평가 및 과학기술정책의 대안연구,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혁신 과정에 관한 학문적연구 등을 수행하게 되고 연구평가실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기법개발 및 제도연구,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기관 및 과제평가업무 등을 총괄하게 되며 연구기획실은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기술평가위원의 경우 기계, 전자·정보, 화학, 화공, 소재,

생명공학등 5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분야별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및 예측, 주요연구과제의 발굴과 선정,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및 사후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각 연구실팀 구성은 자체연구진 뿐만아니라 과학기술원의 타 연구실이나 유관기관의 연구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조화된 정책연구 및 평가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센터내의 정책연구, 기술평가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학계, 기업 및 정부부처 인사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와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등 2개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 國家 海洋政策방향 모색

### 해양研, 新海洋질서와 국가대책세미나서

해양研究所(소장 許亨澤)는 3월 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해양관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新海洋 질서와 국가대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국가해양정책의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東海 海上力변화를 중심으로한 소련의 동북아 해양정책과 남북한 관계」 「韓·日 어업의 경제적 평가」 「비준을 앞둔 우리나라의 신해양법 협약에 따른 대책」 「남극조약 가입에 따른 법적 문제의 재검토」 등 최근의 현안 문제를 주제로 연구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인 李瑞恒박사는 「한국과 남극조약」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극조약과 이 조약하에서 채택된 150여개 이상의 협의설치 및 권고사항, 남극물개보존협약, 남극생물보존협약 등 남극만큼 국제법상 많은 문제가 내재된 곳이 없는 만큼 남극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남극탐사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남극조약 위원회 당사국(ATCP)의 배타적 정쟁결정방법과 남극에 관계된 결정사항을 공포하지 않는 점 등으로 제 3세계 국가들의 남극참여를 어렵게 하는 실정이고 제 3세계국들은 다양한 국가이익의 표출로 영유권 주장국(칠레, 아르헨티나),

현재제응호국(한국, 인도, 중공, 브라질), 현존체제수정국(아프리카 통합기구의 다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밝혔다.

李박사는 또 우리나라는 85년 4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협약에 가입하였고 86년 12월에 남극

조약에 정식 가입했으므로 현재제의 응호국이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남극진출을 하려는 첫째, 남극지지를 건설하고 남극 과학탐사 등 현저한 활동실적이 인정되어 당사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ATCP회원이 되어야 하고 둘째, 남극과학탐사 활동을 주도할 비정부간국제기구인 남극과학위원회(SCAR)에 가입, 한국남극과학위원회(KSCAR)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2개 中小企業에 기술지도

### 電子通信研, 기업대표초청 간담회도 개최

韓國電子通信연구소(소장 景商鉉)는 과기처가 지정한 33개 유망중소기업과 체신부 선정의 19개 중소통신부품업체등 모두 52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다.

전기기본법에 의거 “기술지도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자통신연구소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부품업체의 진흥 육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덕전자, 한국중명, 서린전자 등 체신부가 선정한 19개의 중소통신부품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지난 연초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또 과기처가 지정한 삼보컴퓨터, 일성기계제작소, 경향시스템등 유망중소기업 33개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도 적극 펴 나가고 있는

데 연구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정개선, 시험분석, 설계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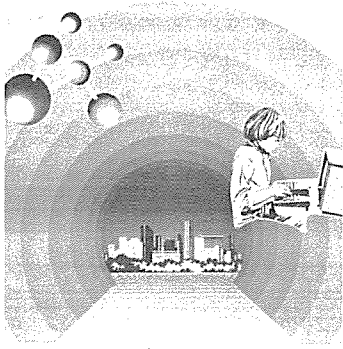
전자통신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도 내용은 △통신용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자동화기술 △전자통신기기 △반도체장비 및 기타 등 5개 분야에서 19개 기술이다.

특히 전자통신연구소는 유망중소기업 대표를 연구소에 초청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지도를 보완해 나가기 위한 「유망중소기업대표자 초청 간담회」와 실무책임자들을 위한 「유망중소기업실무책임자초청 간담회」를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科學行事 다채롭게 펼쳐

科學의 달 맞아 紀念式등 개최

제 회 과학의날



政府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21일 오전 10시 大德연구단지내 과학기술대학 강당에서 천여명의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의 날」 기념식을 개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상을 시상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한편 기념우표(과학시리즈)를 발행하는 등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과학어린이 6천 5백 20명을 선발, 과학의 날인 21일 전국의 각 국민학교와 재외한국인학교에서 과기처장관상장 및 부상을 수여토록 할 방침이며 初·中學生을 대상으로 모형항공기공작 경진대회, 과학상자조립대회, 과학실험경연대회등 9개 분야별로 靑少年科學경진대회를 개최할 작정이다.

또한 「새로운 차원의 과학화운동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품토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 전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4월말경에 과학기술 20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産·學·研과학기술좌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망중소 기업체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공계대학생과 연구원간의 대화의 광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 초·중고교사를 대상으로 과학교사연구논문을 현상모집, 2천년대를 향한 과학기술교육진흥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수과학도서를 선정, 저술·번역·출판등 3개 부문에 걸쳐 시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科總산하 40여개 학회 및 단체에서 각종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과학주간 행

사로 20~26일 일주일간 생활과학강좌등 128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科總에 팩시밀리 寄贈

在日科協 金文在씨

在日韓國과학기술자협회 사무국장이며 Computer & Business System Management.Service대표인 金文在씨가 본 연합회에 팩시밀리 1대를 기증했다.

값이 2백80만원 상당하는 이 팩시밀리는 Fuji XEROX 28011기종이다.

科總, 팩시밀리開設

이에 따라 科總은 4월 1일부로 팩시밀리를 개설함으로써 회원단체와의 사무처리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게 됐다.

FAX 번호는 553-2170

科總은 또 4월1일부로 銀行지로 창구를 개설했다. 지로No.7516416

發明진흥 有功者 포상

발명장려대회 열고 우수업체도 시상

韓國發明特許協會(회장 具滋暎)는 오는 5월 19일 제22회 發明의 날을 맞아 전국발명장려대회를 개최하고 발명진흥유공자를 포함한 발명인과 모범적인 특허관리업체를 선정, 포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협회는 전국발명장려대회 포상신청(추천) 요령을 확정했는데 「발명진흥유공자상」은 △국내의 발명전시회에 입상

한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자 △국내외 우수발명으로 선정된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자 △ 발명고안의 출원등록실적이 많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자 △발명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선발, 포상하게 되며 그리고 「우수특허관리업체상」은 특허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신고한 업체로서 특허관리가 우수한 기업체를 선정, 시상하게 된다.



## 韓國技術士會

韓國技術士會는 3월 28일 대한 건축사회관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金慶植회장(기계기술사·김경식특허법률사무소장)과 許煥 부회장(광업기술사·삼중엔지니어링회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鄭兩淑씨(생산관리기술사·한국 생산기술연구소장)와 李東鎭씨(건축시공기술사)를 새로 부회장에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 李台燮과기처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개발자금의 지원과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술용역수출지원제도등 제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기술용역육성법 개정을 비롯하여 각종 과학기술관련법규와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기술사들의 지식과 기술이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발전과 기술개발에 공이 큰 金明熙(토목시공)·裴正吉(토목시공)·金慶鎭(안전관리)씨에게 장려상을 수여하는 한편 8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하고 87년도 사

업계획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기술사회는 올해에도 기술사의 처우개선 및 효과적인 활용과 권익향상을 위한 관계법제정을 위하여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자질향상에도 힘을 작정이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합격된 기술사에 대한 신규등록업무 및 보수교육을 통한 갱신등론업무를 대행키로 함에 따라 기술사를 위한 서비스지원 업무도 적극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 韓國農工學會

韓國農工學會는 3월 7일 과학기술회관 2층회의실에서 198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16대 회장에 李熙榮교수(서울시립대), 부회장에 韓相昱(농업진흥공사사업본부장)·金鍾遠(농림수산부 개량과장)·李在起(국제건설(주) 국내사업본부장)씨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8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하고 8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는데 특히 올해에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심포지움과 함께 기념식을 하반기에 개최키로 했으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온 農業土木핸드북발간사업을 올해안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農工분야 학술발전에 공헌한 崔

福煥씨(강원대 농대교수) 등 10명에게 학술상을 비롯 기술상, 장려상을 수여했으며 학회 육성발전에 기여한 李重根씨(강원도청 학생과장) 등 5명에게 공로상을, 그리고 11년간 장기 근속한 사무처의 李相載구장을 표창했다.

## 大韓人間工學會

大韓人間工學會(회장 朴景洙)는 3월 28일 한국과학 기술원에서 87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회장에 대한 補選이 있었는데 2인의 부회장 가운데 학술부회장에 李舜堯교수(고려대 산업과)를 선출했으며 학술발표회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동요의 변화에 대하여」 등 4편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다.

## 韓國纖維工學會

韓國纖維工學會(회장 河完植)는 4월 10~11일 양일간 인하대학교 대학본관에서 87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는 한편 금년도 학술상을 시상했다.

또한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盧益三한국고분자학회장의 「우리나라 고분자교육」등 세편의 특강과 「봉제시 바늘의 온도가 가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30편의 학술연구논문이 발표됐다.



### 大韓金屬學會

大韓金屬學會(회장 姜日求)는 4월 24~25일 양일간 경북 영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87년도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日本複合材料學會 회장인 梅川莊吉박사의 「섬유강화 金屬基 복합재료의 계면에 대하여」 등 네편의 학술강연과 「스텐레스강 피복 알루미늄 복합판재의 인장성질」 「한국 청동기의 과학적분석」 「산화철광의 환원에 미치는 불순물의 영향」 「분말야금 공정과 자동차산업 연관성에 관한 고찰」 등 125편의 연구논문발표가 있게 된다.

### 大韓熔接學會

大韓熔接學會(회장 嚴東錫)는 4월 10~11일 양일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87년도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열고 「한국 고대 철제조기술」 등 특강 3편과

「철강재료용 용접데이터시스템」 등 45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용접법, 용접성, 용접기기, 강도, 파괴, 재료, 설계, 시공, 관리 등의 분야에서 「수평형 자동마찰용접기 국산화개발」 「Aluminum Spot 용접기법」 「고장력강의 습식 수중 아크 용접성과 기계적 특성에 관한 고찰」 「강용접 열영향부의 용접후 열처리가 부식피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용접전문 기술자 교육사업 추진현황」 「동합금과 탄소강용접에서의 문제점 검토」 등 45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 大韓機械學會

大韓機械學會(회장 趙宣彙)는 3월 21일 홍익대학교 와우회관 강당에서 「재료 및 파괴부문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강연회에서는 한국해양대학 金永植교수의 「최근의 용접용 고장력강재의 기술동향」 등 4편의 학술강연과 크랙성장개시를 위한 미시적 파괴조건(具寅會

/중앙대공대)」 등 7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 韓國化學工學會

韓國化學工學會(회장 朴元圭)는 오는 4월 23~24일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원 존슨강당에서 제4회 韓·日기술교류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遺傳工學센터와 공동주관으로 日本化學工學協會의 협조를 얻어 열리게 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化工技術중 산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生命工學의 공정개발과 산업화에 관하여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日本측에서 東京大學 공학부교수인 古崎 新太郎박사의 「Biotechnology에 관한 2~3개 화제의 장래의 전망」 등 6편을, 한국측에서는 화학회약그룹 유전공학실 安範鍾박사의 「한국생물공업의 현황」 등 5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게 된다.

## 科總회원단체 4월중 행사계획일정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자	장소
대한마취과학회	강희윤	춘계학술발표회	4. 3	부산일보사
대한국토계획학회	김안계	한·일비교연구회	4. 4 - 5	건설회관
대한용접학회	엄동석	춘계학술발표회	4. 10 - 11	경주코오롱호텔
한국정보과학회	김종상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4. 10 - 11	전북대학교
한국의류학회	조승식	춘계학술발표회	4. 11	롯데호텔

★다음 쪽에 계속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자	장소
대한산업공학회	김영휘	춘계학술발표회	4. 11	전남대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	정환	춘계학술발표회	4. 11-12	부곡관광호텔
한국경영과학회	나웅배	춘계학술발표회	4. 11	전남대학교
한국고무학회	김준수	총회 및 학술발표회	4. 17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섬유공학회	하완식	춘계학술발표회	4. 17	인하대학교
한국요업학회	한기성	춘계학술발표회	4. 17-18	한양대학교
대한토목학회	최영박	총회 및 특별강연회	4. 18	건설회관
대한치과의사협회	신민철	총회	4. 18	전남대학교
대한광산학회	전용원	춘계학술발표회	4. 22-24	세라톤워커히호텔
한국화학공학회	박원규	한·일 기술교류세미나	4. 23-24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공학회	박원규	총회 및 학술발표회	4. 23-24	한국과학기술원
대한조선학회	홍성완	춘계학술발표회	4. 24-25	부산수산대학
한국기상학회	이승만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4. 24-25	연세대학교
한국미생물학회	노현모	춘계학술발표회	4. 24-26	제주대학교
한국균학회	정규선	춘계학술발표회	4. 24-26	제주대학교
한국산업미생물학회	하덕모	춘계학술발표회	4. 24-26	제주대학교
대한금속학회	강일구	춘계학술발표회	4. 24-25	영남대학교
대한보건협회	권이혁	보건학세미나	4. 24	서울대보건대학원
한국박용기관학회	전효중	춘계학술발표회	4. 24-25	부산수산대학
대한전자공학회	서정욱	과학의 달 세미나	4. 25	동방프라자
한국자동차공학회	유병철	기관부문위원회학술강연회	4. 25	숭실대학교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문병집	춘계학술발표회	4. 25	중앙대학교
대한가정학회	손경희	춘계학술발표회	4. 25	숙명여자대학교
대한광산지질학회	박희인	총회 및 학술발표회	4. 25	강원대학교
대한수학회	임정대	춘계학술발표회	4. 25	명지대학교
한국물리학회	김정흠	춘계학술발표회	4. 25-26	전국대학교
대한건축학회	이광노	'87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4. 25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한건축학회	"	제2회 전국대학 건축학과 졸업 설계작품발표회	"	"
대한건축학회	"	각지부조사 미지정문화재 건축물 실측보고전시회	"	"
대한기계학회	조선휘	고체역학부문학술강연회	4. 25	한국기계공업진흥회관
한국항공우주학회	홍재학	춘계학술발표회	4. 25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동물학회	하두봉	춘계학술발표회	4. 25	한남대학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박정기	제2회 한국원산 및 원자력학회 합동연차회의	4. 28-30	한국전력공사
한국생약학회	도상학	과학의 날 기념학술대회	4. 29	동덕여자대학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한응교	춘계학술발표회	4. 30	한국기계공업진흥회관

## ●●●● 韓國情報科學會

韓國情報科學會(회장 金宗相)는 4월 10~11일 양일간 전북대학교에서 제14회 임시총회 및 춘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金聖鎭박사(한국전산원장)의 「1987년의 도전과 전산망사업」 小坂義裕박사(日本 후지쯔 (주)시스템본부)의 「日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사례」를 주제로 한 2편의 초청강연과 OS, DB, AI등 11개 분야에서 10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학회발전에 공이 많은 과학기술자 崔永煥기술정책실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 成瑞秀소장등 有功者 10명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또 전자계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연구의욕을 제고하고 국내정보과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 6회 정보과학논문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IBM과 한국후지쯔(주)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大學院部에서 朴勝運씨(KAIST전산학과)가 출품한 「컴파일시 생성된 여러개의 선형순서를 가지는 And/Or 프로세스 모델에 관한 연구」와 大學部에서 鄭成太·曹圭贊씨(서울대 전산기공학과)가 공동연구한 「계층적 점진적 회로 추출기의 설계 및 구현」등 총 14편의 우수 논문이 뽑혔다.

이밖에도 대학원부 특별상에는 김도형씨(KAIST), 우수상에 전영표·이종만·엄준호·류기열씨(KAIST), 장려상에 안종길·차신(KAIST)·김홍환·이신영씨(서울대) 등이 차지했으며 대학부 우수상은 윤석정씨(연세대)와 김우영·박채령씨(서울대) 그리고 장려상은 최윤석·김재범씨(서울대)가 공동 수상했다.

## ●●●● 大韓鑛山學會

大韓鑛山學會(회장 田溶元)는 오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웨라톤 워커히호텔에서 石炭開發 및 保安에 관한 國際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불란서등 9개국에서 관계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여 석탄개발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광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방지에 따른 保安문제 등을 깊이있게 다루게 된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동자부 이봉서차관 등 4명의 기조연설을 비롯 「어려운 석탄층의 채광방법과 채벽기제화」등 13개 분야에서 최신연구논문 58편(국내 25편, 국외 33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 ●●●● 韓國非破壞檢査學會

韓國非破壞檢査學會(회장 韓應敎)는 3월 24일부터 3일간 반도유스호텔에서 美國非破壞檢

査學會(ASNT) 비파괴검사 3급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총 65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은 방사선투과검사를 비롯 초음파탐상시험, 지분탐상시험, 와전류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 금속재료, 재료 및 생산기술등 7개 분야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ASNT NDT Level III 시험 응시자격은 정규대학 졸업후 1년 이상 실무종사자나 Level II 자격취득자에 한해 부여되는데 우리나라도 비파괴검사에 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응시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2년부터 이 시험을 주관해 오고 있는 동학회는 이 ASNT NDT Level III 시험에 대비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21일까지 2주일간 경기개방대학의 박은수교수를 초빙하여 시험대비 강습회를 가진 바 있다.

## ●●●● 大韓化學會

大韓化學會(회장 全民濟) 제159회 연회 및 춘계총회가 2월12~13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열려 日本 호카이도대 아끼라 수즈끼교수등 4명의 특별강연을 비롯 일반연계 165편이 발표됐다.

화학회는 또 국립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환경오염세미나를 개최하고 「환경보존법과 전방/질형국(환경청 대기보전국장)」을 비롯하여 「수질오염물 측정과 평가기법」 「환경측정에서의 정확도 관리」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시설」 등 1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 産業科學技術研 문 열어

## 浦鐵부설, 기초과학 및 산업과학 전반 연구

産業體와 大學을 연계시켜 산업기술과 기초과학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財團法人 産業科學技術研究所(소장 金鐵佑)가 3월 27일 浦項에서 개소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李台燮과학기술처장관을 비롯 朴泰俊포항제철회장, 李正五과학기술원장, 金浩吉포항대학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문을 연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浦鐵부설 기술연구소를 확대 개편해 설립한 民間주도의 종합 연구소로 앞으로 철강·소재관련의 재료공학분야를 비롯 전기, 정보, 정밀화학, 생체공학, 경영과학 등 산업과학전반과 물리, 화학, 생물등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해 나가게 된다.

浦鐵은 제철소건설과 조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浦項工大의 연구역량과 연계시켜 이 연구소를 産·學·研 협동연구소로 육성시켜 美國의 바빌기념연구소, 日本의 理化學연구소 수준의 民間중합과학기술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浦鐵은 이를 위해 이 연구소에 기존의 건물 및 연구시설등 2백 24억원 상당을 출연한데 이어 올해 8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현재 3백35종의 연구기기를 91년까지 6백90여종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연구인력도 현재의 3백 80여명에서 95년까지 8백50여명

으로 늘려 외부인사를 활용하는 겸직연구원을 포함 1천1백 50명 규모의 대규모 종합연구소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 「아이디어뱅크」開設

#### 관련기업에 實用化알선

韓國發明特許協會(회장 具滋賾)는 산업 및 생활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용화시켜 나가기 위해 최근 「아이디어뱅크」를開設했다.

협회는 이 「아이디어뱅크」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가운데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별, 관련기업에 알선하여 실용화시킬 방침이며 특히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으로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출원을 적극 지원해줄 계획이다.

그리고 신청 접수된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한 내용을 골라 시상함으로써 발명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週刊科學사장에 金軫鎬씨



〈金軫鎬사장〉

(株)週刊科學은 4월 1일 鄭達善 발행인겸 대표이사 사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金軫鎬 편집인겸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 韓國, 原電이용을 세계 7위

### 1위 핀란드, 2위는 헝가리

우리나라는 지난 해에 原子力發電所의 이용율을 평균 78.43% (당해년도 상업운전한 신규발전소 포함)로 높임으로써 운전중인 26개 原電보유국중에서 7위로 부상했다.

美國의 「뉴클리오닉스 워크」지가 최신호에 수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국가별 이용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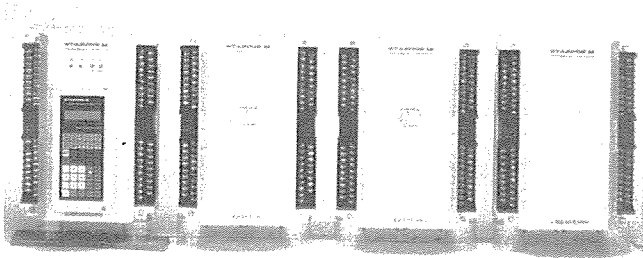
88.79%이며 2위는 헝가리(86.16%), 3위 네덜란드(83.16%), 4위 스위스, 5위 스웨덴, 6위 서독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이러한 이용율은 지난해의 세계평균이용율 64%를 훨씬 웃도는 실적이다.

그런데 이용율이란 연간發電한 평균 전력을 시설용량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 PC시리즈화에 成功

### 金星計電 고급PC수입대체 가능



◇金星計電이 시리즈화한 PC종 스타콘 A 56

國內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業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의 시리즈화가金星計電에 의해 실현됐다.

關聯業界에 따르면,金星計電(대표:白重英)은 지금까지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PC)를 공급하면서 기간 축적한 첨단 산업전자 기술력으로 PC機種의 시리즈화를 이루어 300억 시장의 韓國 PC業界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다고 한다.

金星計電이 이룬 PC 시리즈화는 우선 다양한 PC機種을 중소규모에 있어서는 4 가지로 분류, 스타콘A 시리즈로, 대규모는 스타콘 MF 시리즈로 통합하여 각 시리즈별로 동일한 주변기기를 활용케 한다는 것이다.

스타콘A 시리즈는 기본 입출력 점수 최소 16점을 기본으로 하여 최대 280점까지 확장을 할 수 있으며 스타콘 MF시리즈는 최소 40점을 기본으로 하여 최대 3,200 점까지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종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자동화 설비에 최적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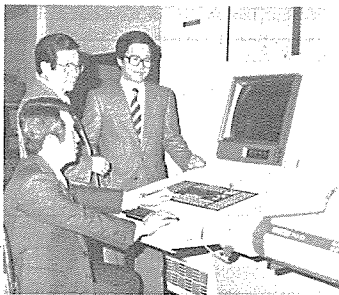
동사는 이번의 통합으로 그동안 기종별로 다르게 사용해 오던 PC 명령어를 한가지로 통일하고

소형 PC에도 고급 제어기능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다양한 PC사용 언어를 익혀야 했던 사용자들이 단일의 사용법만 익혀도 전기종을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PC 기종별로 별도의 주변기기들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에 있어서 많은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외국에 의존하던 고급기종의 PC를 국내서 구입케 돼 1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보게 되었다.

## WDPF 시스템 國內에 첫선

### 웨스팅하우스社, 단일네트웍으로 정보처리



웨스팅 하우스社의 WDPF정보처리시스템이 國內에 첫선을 보였다. Process Control, Plant monitoring과 공장자동화 등을 위해 쓰이는 WDPF (Distributed Processing Family)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보수, 유지와 방대한 분야의 정보처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작동도구, 하드웨어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

WDPF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정보처리기능을 단일 네

트웍에서 행하여 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상호 작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조작하여 그림 도표, 사다리 모양의 도표를 그려낼 수 있고 입출력 데이터 기록을 산출해 낼수있으며 WDPF 시스템소프트웨어를 보완하기 위한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社는 WDPF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세계의 제철, 발전, 화학, 석유화학, 식품, 기계 공장 등에 설치 운전중이며 1986년 초 한국내 보정 C & I (주)와 손잡고 각종 산업설비에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社와 보정 C & I (주)는 이미 수명의 컴퓨터 관련 전문 엔지니어를 웨스팅하우스 피츠버그 공장에서 연수시킨 바 있다.